

KLTA NEWS + 2012 Spring

“임업분야 FTA대응책은 임업현장에서 만든다”
 품목별 현장간담회, 21일 청양서 표고 재배자와 첫
 만남...한중FTA TF팀도 구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중국과의 FTA 논의가 진전되는 등 각국과의 FTA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산림청(청장 이돈구)이 임업분야 FTA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산림청은 3월 21일부터 두달 간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잇달아 갖는다. 21일 오후 충남 청양군 청남면 사무소에서 열리는 표고 생산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품목별로 돌아가며 매주 열릴 이번 행사는 김남균 산림청 차장을 비롯한 산림청 공무원과 해당 지자체 관계자, 산림조합의 전문가 등이 현장에 나가 임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FTA 대응과 관련한 각종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우선 표고, 밤, 산양삼, 대추, 산채류, 뽕은감 등 민간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이후 타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한중 FTA 논의가 가시화되는 데 맞춰 임업인 소득을 높이고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소득품목을 개발하는 등 FTA에 대비한 임업 선진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대고산수목원 탄생 눈앞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16일 경북 봉화서 기공식
 갖고 본격 조성공사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핵심 축인 백두대간에 들어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 조성과정에 들어간다. 아시아 최대의 고산수목원 탄생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3월 16일 오전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백두대간 자락에서 이돈구 산림청장과 이주석 경북 부지사, 박노옥 봉화군수와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기공식을 갖는다. 백두대간 보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이 수목원은 부지면적 5179ha(중점시설지구 206ha)에 모두 2515억원이 투입돼 만들어진다. 지난해까지 기본·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이 완료됐고 올해부터 전시원 조성 및 건축공사가 시작돼 2014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된다. 개원은 2014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수목원은 기후변화 지표식물원, 산림종자연구저장시설, 고산식물연구동 등을 갖추고 한대·고산 식물 보존 증식 및 연구,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보존 복원, 국내외 유용식물자원 확보 및 자원화, 산림생태 교육 탐방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백두산 호랑이도 자연상태에 가까운 환경에서 방사된다. 산림청은 이 곳의 산림종자연구저장시설을 UN식량농업기구(FAO)의 공인시설로 인정받은 뒤 세계 각국의 산림종자를 들여와 종자에 관한 다양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산물도 조합공동 브랜드사업 가능해져 산림조합법시행령 시행, 지역·품목·업종 공동사업 가능...설립기준은 강화돼

앞으로는 임산물도 2개 이상의 산림조합이 출자해 만드는 브랜드사업이 가능해진다. 쌀이나 고추 감자 등 농산물처럼 지역별, 품목별로 브랜드화해서 조합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지역 산림조합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임산물 생산과 유통 등을 지역별, 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2개 이상의 산림조합이 공동출자해 물자구매, 생산 및 유통 등 경제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산림조합법시행령이 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기준을 ‘출자금 납입확약금 총액 3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실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제도는 밤, 호두, 대추, 표고버섯 등 임산물 물량의 규모화를 이뤄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산촌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새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임산물 산지 주민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배정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산림청은 임산물 생산성을 높여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지이용에 따른 불편 등 산림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점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산촌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첫 산림특성화고교 개교

경북 봉화 한국산림과학고 2일 개교 입학식...
산림산업 현장전문인력 양성목표

국내 최초의 산림분야 특성화 고교인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가 3월 2일 문을 열었다. 산림과학고는 이날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서 개교식 및 첫 입학식을 갖고 산림환경자원학과와 임산물유통정보학과 2개 학급 51명의 신입생으로 출범했다. 산림현장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학교로 만들어진 이 학교는 지난해 10월 춘양상업고등학교가 산림특성화고교로 지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해 개교했다. 그동안 전자, 기계 등 다른 산업분야의 특성화고는 설치된 적이 있지만 산림부문에서는 처음이다.

산림청은 앞으로 전국에서 산림특성화고를 5개로 늘린다는 계획으로 예산확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